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 (도야마현)

1. 목적

본 조사는 ①계속적으로 인공물에 의한 해변의 오염실태를 파악함으로써,해양환경 보전대책, 폐기물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 ②연안 지역 주민들이 조사에 참가함으로써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바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기른다」 라는 공통의식을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적인 해양환경 문제로 주목받고 있고, 환동해지역 연안에 표착하고 있는 표착물량을 통일된 방법으로 조사하는 본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는, 일본정부나 국제기관에서 표착물 대책의 기본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업내용

(1) 실시시기 2007년 4월~2008년 3월

(2) 실시장소 동해·황해의 해안

(3) 실시방법

a 조사주체

지자체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실시

b 조사방법

- 해수욕장 등에서, 파도치는 방향에서 육지쪽으로 연속적으로 3구획 정도를 조사구획 (1구획 10m×10m) 으로 설정한다.
- 설정한 조사구획의 표착물을 모두 주위 다음의 8종류로 분류해 개수및 중량을 측정한다.

① 플라스틱	② 고무류	③ 발포스티렌류	④ 종이류
⑤ 형질류	⑥ 유리·도자기류	⑦ 금속류	⑧ 그외 인공물

c 조사결과

지자체에서 본 현에 제출된 조사결과는 (재) 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가 정리해서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4) 참가지자체 (예정)

동북아시아지역 지자체연합 회원과 기타 지자체를 합한 26 지자체 53 해안에서 실시예정

일 본 :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아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러시아 : 연해주지방, 하바로프스키지방, 사할린주

한 국 :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중 국 :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5) 년차계획

2008 년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행한다

4. 2006 년도 사업결과

(1) 참가지자체

동북아시아 지자체 연합회원과 기타 지자체를 합한 25 지자체 53 해안에서 실시

(2) 실시결과

현재,결과 정리중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활동 모습】



일 본



중 국



한 국



러시아